

방탄소년단, CNN 선정 “2010년대를 변화시킨 아티스트”

방탄소년단(BTS·사진)이 미국 CNN 선정 ‘2010년대 음악을 변화시킨 10대 아티스트’에 선정됐다.



했거나 그들의 빅 팬 중 한명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그들의 영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BTS는 CNN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자신들의 음악 장르와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인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음악산업의 변화를 이끈” 아티스트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BTS 외에 비욘세, 켄드릭 라마, 프랭크 오션, 레이디 가가, 드레이크, 메트로 부민, 테일러 스위프트, 솔란지, 카니에 웨스트 등도 톱 10에 선정됐다.

이 매체는 또 BTS가 2018년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LOVE YOURSELF 轉 Tear)로 K팝 앨범 최초로 미국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이후 한 해에 3차례나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오른 사실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포함해 세계에서 수백만 장의 앨범 판매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CNN은 BTS에 대해 “K팝을 미국에 대중화시켰다.”며 “K팝을 주류음악(mainstream)으로 이끌었고, 이들의 음악이 2010년대 말미에야 부상한 까닭에 미국인들 사이에서 2020년대 K팝은 더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은 2009년 원더걸스가 ‘노바디’로, 2012년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빌보드 차트에서 성과를 거뒀던 사실을 돌아보며 “K팝은 늘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누렸지만 미국 시장을 뚫기 위해 분투해왔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BTS가 모두를 압도적으로 제쳤다”고 평가했다.

CNN은 “당신은 BTS의 음악을 전혀 들어보지 못

미국 애니메이션 ‘Spies in Disguise’에 등장한 K컬처

윌 스미스와 톰 홀랜드가 목소리 연기를 맡은 21세기폭스사의 애니메이션 ‘Spies in Disguise’에 한국의 인기 걸그룹 트와이스의 노래가 사용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KNOCK)이다.

또한, 한국 드라마 열혈 애정자 윌터가 분방 사수하는 드라마 ‘서울의 열정’과 함께 영화 곳곳에서 등장하는 한국어 대사들은 한국 관객들에게 특별한 웃음 포인트로 작용하며 신선한 재미를 선사한다.

‘Spies in Disguise’는 잘나가는 슈퍼 스파이에서 한순간에 새가 된 스파이 ‘웬스’ (윌 스미스와 별난 상상력의 새가슴 지니어스 ‘윌터’ (톰 홀랜드)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 극한의 팀플레이를 펼치는 스파이 액션이다.

뿐만 아니라, 별난 상상력으로 만든 윌터의 발명품 반짝이 구름은 터뜨리는 즉시 귀여운 고양이 홀로그램이 펼쳐져 상대를 무장해제 시키는 스페셜 가젯으로, 이 역시 한국의 유명 인스타그램 채널의 고양이 우아의 사진을 참고해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영화에서 톰 홀랜드가 목소리 연기를 맡은 ‘윌터’는 한국 드라마부터 K팝까지 섭렵하며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인물이다. 윌터가 기상천외한 가젯을 발명하는 실험실에 등장하는 배경음악이 대표적인 한류 K팝 그룹 트와이스의 ‘낙낙’ (KNOCK

지난달 25일 개봉해 개봉주 기준 박스오피스 5위에 올랐다.

샤론 스톤 “데이팅앱이 내 계정 폐쇄”

섹시 배우의 대명사 샤론 스톤(61)이 데이팅앱 범블에서 계정 삭제를 당했다.

‘원초적 본능’으로 유명한 스톤은 지난 30일 본인의 트위터에 “범블 데이팅 사이트에 갔는데, 그들이 내 계정을 폐쇄했다. 몇몇 유저들이 진짜일리 없다고 신고했다고 한다. 헤이 범블, 나를 배제하는거냐. 나를 밀어내지마라.”라고 적었다. 이에 범블 측은 “미스 스톤이 (우리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데 대해 영광스럽다.”며 “스톤의 계정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스톤은 2차례 결혼했다가 이혼했으며, 2018년 인터뷰에서 “데이트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하는데, 그런 남자를 찾기가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다.

뉴욕포스트는 “스톤같은 대스타가 데이트를 못 한다는 게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릴지는 몰라도, 실제로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한 중매장자들은 유명할수록 데이트 상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유명인 전문 중매장이 미셸 프랭켈은 “영화 촬영장이나 녹음 스튜디오에서 하루 10~12시간씩 일하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며 “유명 연예인들은 자기 직업이 아니라 자신과 사랑에 빠지고 싶어하는 사람을 원한다.”고 말했다.

2014년 서비스를 시작한 범블은 여성이 먼저 데이트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는 무려 5,500만 명이나 된다.

1297호 숫자퍼즐 정답

3	6	4	2	7	9	5	8	1
1	5	7	3	6	8	2	4	9
8	9	2	4	1	5	3	6	7
2	1	6	7	5	4	9	3	8
4	8	3	9	2	6	1	7	5
5	7	9	8	3	1	4	2	6
7	4	5	1	8	2	6	9	3
6	2	8	5	9	3	7	1	4
9	3	1	6	4	7	8	5	2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운세 상담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로 바뀌는 시점이 되면 누구든지 새해의 운수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누구든지 해가 바뀌는 시점에 이르러 되면 신년 운수가 궁금한 것이 당연하다. 신년 운수를 알아보기 위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방법으로 흔히 토정비결(土亭秘訣)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토정비결은 주로 일반 서민들에게 삶의 애환을 달래주고 한 해 운수를 알고싶어 하는 욕구를 보다 손쉽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점서(占書)이다. 그 내용의 대부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할 점들을 알려주고 다가오는 새해에 희망을 주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와 같은 전문 역학인(曆學人)이 보는 관점에서 토정비결은 하나의 재미로서

볼 수는 있으나 입체적인 관점에서 각자 개인에게 꼭 필요한 운명적인 조언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본다. 필자와 같은 전문 역학(易學) 학술인을 통해서 한해의 운수를 알아본다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가지고 진단하게 되는데 한 사람의 운명을 진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시각에 뿌려진 하늘의 천기(天氣)와 땅의 지기(地氣)의 역학적인 관계를 분석하고 보다 정교하게 한 사람의 인생에 드리워진 운명적인 특징을 알아볼 수 있으며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관점에서 인생 전반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보다 잘 할 수 있는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신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어떤 분야에서 언제

활동할 때보다 손쉽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으로 어떤 운세가 다가오게 되는지 알 수 있고 그 운세에 맞추어서 자신이 어떤 처세와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 더불어서 신년운세로서 재물운, 직장운, 사업운, 배우자운, 자식운, 건강 등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마치 일기예보처럼 한 해 동안의 기상과 날씨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것인데 내일의 날씨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고 되는대로 살아가는 사람과는 운명적인 효율성에서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 2020년 새해운세 상담합니다 ★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